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0년 10월)

일시	2020. 10. 15. 목. 오후 5시	장소	광주MBC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부원, 구제길, 김요수, 김형순, 류한호, 이묘숙, 이정권, 최선희, 최영태(9명)	
	회사	송일준 사장, 한신구 경영기획국장, 곽관주 편성제작국장, 조현성 보도국장,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이선우 기획심의부장(6명)	

■ 회의 내용

- 이선우 기획심의부장 : -최영태 위원장님께서 일정이 있어 늦는 관계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과반 성원은 됐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최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를 진행해주시겠다.
- 최선희 부위원장 : -최영태 위원장님께서는 광주 전남 군 공항 이전 관련 긴급회의가 소집된 관계로 늦게 오신다. 제가 진행을 하겠다. 2020년 10월 15일 광주MBC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 송일준 사장 :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해서 올해 대면 시청자위원회를 거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러분께서 서면으로 주신 의견은 참고해서 방송하고 있다. 저희가 그동안 김철원 기자가 한 5.18 다큐가 한국방송대상을 받았고, <핑크피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대상을 받았다. 특히 10월에는 저희가 바쁜데, 오프라인해서 해야 하는데 못한 <아시안탐밴드>는 취소시키지 않고 PD가 노력해서 온라인 경연을 실현시켜서 7편 정도로 방송을 시작한다. 서울에 있는 엠비시뮤직 채널을 통해 전국에 방송될 것이다. 지오마라톤대회도 올해 진행은 못했지만 방향을 바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본사 네트워크를 통해 지오파크 관련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광주 무등산권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성과를 냈다. 광주MBC를 지지, 성원, 격려, 사랑해주는 시청자위원 여러분의 덕이 크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린다.
- 최선희 부위원장 : -주요 업무 보고를 해달라.
- 곽관주 편성제작국장 : -<아시안탐밴드>는 7개국 8개 방송사가 참여해서 녹화를 진행 중이다. 다음 주 화요일 결승전 녹화를 하는데 비대면으로 한다. 첫 방송은 10월 29일부터 8편이다. <핑크피쉬>는 양동시장 레스토랑 협약을 9월 25일에 했는데 연말 오픈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별기획 마한은 대담과 도올 김용옥 특강이 각각 22일, 27일 밤에 방송한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기획 특별 인터뷰를 오늘 밤 10시 40분 본방송 후 토요일 오전 7시 40분에 재방송한다. TV 개편이 10월 23일 자로 있는데 가장 큰 골자는 금요일 밤 9시대에 <트로트의 민족>이 신설되고 그에 따라서 로컬 <문화콘서트 난장>이 금요일에서 토요일 밤 8시 50분으로 이동한다는 보고를 드린다.
- 조현성 보도국장 : -지난 한달 동안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방역

수칙의 변화와 여파를 중점보도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촉발된 시도 간 행정 통합이 이슈였다. 제안 초기에 설왕설래도 많았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뉴스에서는 기자 리포트 외에도 시장, 부시장의 직접 출연해 의견을 들었다. 추석 직전엔 무등일보, 사랑방신문과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민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창사 56주년 관련해서는 가을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미래상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토론이 아닌 강연의 형태로 준비를 했다. 11월 중순부터 방송이 될 예정이다. 다섯 가지 주제에서 한 명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비대면 특별강연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이한 내용 중 하나는 전두환 재판이 검찰 구형이 있었고, 저희 시청자위원이셨던 김정호 변호사가 뉴스와 <시사본색>에 출연해 재판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YMCA 창립 100주년에 대해 류한호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 -국악방송과 공동제작으로 <터무니없는 소리> 공연녹화를 했는데 국악방송의 경우 방송을 하고 우리는 디지털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튜브 채널 트로트 맛집이 두 번째로 실버버튼을 획득했다. 어제 실버버튼 연박싱하고 비대면 미니 트로트 콘서트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했다. 전라남도의남도장터에 디지털콘텐츠 그리고 v커머스 진행을 위해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콘텐츠로 트로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음악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나훈아, 김봉곤 훈장 딸 김다현, <난장>의 이날치 콘텐츠 등이 조회 수 폭발로 실적이 있었다. 향후 주요 계획으로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은 <한 평의 삶> 관련해서 11월 말까지 제작 완료를 해서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 한신구 경영기획국장 : -10월 8일 창사기념일이었다. 코로나 때문에 내부 행사로 진행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져 시청자위원님들을 모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10월 28일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이 성황리에 매진이 됐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 10월 29일 한양수자인 파인힐스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예정돼 있고 11월 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정율성동요경연대회가 준비되어있다. 저희 회사 행사 대부분이 10월 말에, 다음 주에 집중돼 있어서 바쁜 시기가 될 것 같다.
- 최선희 부위원장 :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풍요롭게 결과 내기를 바란다. 창사 56주년을 축하드린다. 이어서 시청자위원 의견 제시하는 시간을 갖겠다.
- 김요수 위원 : -한글날 뉴스가 귀에 쏙 들어왔다.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진행한 '우리말 대결'이라는 뉴스였다. 올해로 6년째인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다. 이런 프로그램은 뉴스에만 나와도 고맙긴 하다. 중계도 하고 유튜브에도 올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다. 요새 우리가 서로 말은 하지만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일이 많다. 분명 한글을 쓰는데 전문가들은 영어를 주로 쓰고 젊은이들은 줄임말을 너무 많이 쓰고 어르신들은 사자성어를 섞어 써서 마치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 말하기 보다 듣기가 쉬워야 하는데 요즘은 듣기가 더 어렵다. 누가 말을 하면 스마트폰을 열어 찾아봐야 한다. 세대별 단절을 가져오고, 불통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바벨탑이 더 쌓이기 전에 언론에서 먼저 앞장서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우리말을 찾아 했으면 좋겠고 그런 프로그램도 하

나 있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김형순 위원 : -뉴스는 요즘 자주 봅니다만 14일 날 여수 제가 살던곳에 대한 뉴스라서 반갑게 봤다. 광주분들도 많이 가는 관광명소 중 하나인데 자연을 훼손해서 관광로를 만들면서 콘크리트로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현장을 고발 취재했다. 굉장히 시의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수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많은데 최근에 관광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그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한번 훼손하면 복구가 안 된다. 특히 자본 유치라는 개념에서 시나 감독청이 미온적인 자세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시의 적절하게 잘 다뤄줬다. 오늘 아침에 반가운 것은 여수, 목포, 광주 MBC 3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사업 기회로, 그 동안 여수 화양지구 관광지구가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던 것을 도지사와 여수시장이 같이 해서 앞으로 개발을 대대적으로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했다. 그 위치가 좋은 해변가에 잘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콘텐츠의 다양함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관광지와 연계해서 하면, 어차피 여수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콘텐츠를 잘 집어 넣으면 남해안의, 전남의 좋은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좋은 콘텐츠로 좋은 멋진 관광명소로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그것이 또 MBC의 경영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구제길 위원 : -지역 균형 발전의 정책 기조와 원칙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와 시도지사의 전략회의에 관한 뉴스를 봤다. 지역 균형 발전과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였다. 갈수록 인구가 줄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모처럼 만에 듣는 좋은 뉴스였다. 그만큼 지역 사정이 절박한 상황인데 앞으로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 정책적 공조와 정부에 대한 압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서 현재 시도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도 여론조사를 하기로 하는 등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 전남 지역발전, 그리고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시도의 열린 자세와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언론의 역할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의 장과 대안을 제시하는 심층 뉴스나 계기성 토론 등 공영방송으로서 광주MBC의 역할도 기대해보겠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여서 그런지 서민 실생활과 관련된 현장성 뉴스가 좀 줄어든 것 같다. 어제 모처럼 만에 임대아파트 분양을 둘러싼 주민과 업체와의 갈등을 보도한 뉴스를 봤는데 살림살이가 더욱 각박해지고 있는 만큼 서민 고충과 불편 등 실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 류한호 위원 :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김낙곤의 시사본색>, <오매 전라도>, <황동현의 시선집중> 등에서 YMCA 10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그 현재와 미래에 관한 구상을 들어본 것은 바람직했다. 시민사회는 민주 인권 평화도시 광주가 광주정신을 실현하고 광주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데서 가장 핵심적 요소다. 광주MBC의 보도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단체가 차지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앞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광주 시민단체들이 가야 할 길을 잘 찾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했다. 지역의 힘은 사람, 즉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앞으로도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길 바란다.

-광주전남 시도 통합의 문제를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기한 후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아직은 이슈를 던진 수준이며 구체화된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

다. 시도통합의 필요성, 수준, 방법, 통합 이후 결과 등에 대한 지역민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시도는 바람직하다. 시도통합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역이 힘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힘을 키워나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부울경 메가 시티,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추진은 광주전남지역보다 앞서가고 있다. 이들의 추진 과정에 대한 점검과 3개 지역 간 경험 공유와 연대도 필요하다. 시도 통합 추진과정에서 광주와 전남 지방 정부들끼리의 합의와 주도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통합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과정은 시끄럽고 복잡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김낙곤의 시사분석>은 TV토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복돋우고, 시민들 사이의 토론과정을 자극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향후 후속 토론을 통해 시도통합 문제를 지역 의제화하고 적절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 최선희 부위원장 : -10월 4일 아침방송으로 방영이 됐는데, 전체적인 내용, 구성 인원, 자리 배치 하나 흠잡을 것 하나도 없이 시기적절하게 잘 진행됐다. 내용 콘티가 상당히 훌륭했다. 인원 배정도 교육계는 장석웅 전남교육감, 정치계는 이형석 국회의원, 과학계는 김준하 GIST 교수인데 지금은 아마 대통령직속 정책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는 말씀이 있었고, 문화예술계는 송진희 호남대 교수 등 각계각층의 얘기가 있었지만 문제점과 대응방안까지 심도 있는 진행을 했다. 그간 한 책상에서 하던 거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네 분의 패널을 각각 개별적으로 자리하고 의견 장면이 마치 선거 후보자가 있는 모습이긴 했지만 상당히 개별적으로 잘 부각되고 좋았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다루고, 특히 김준하 교수가 지금 코로나19의 위기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해줬다. 이런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시리즈로 나아가서 코비드에 관한 안고 꺼안고 같이 가야할 앞으로의 현상들을 잘 다뤄주면 좋겠다.

○ 최영태 위원장 : -10월 4일 <김낙곤의 시사분석>은 추석특집 프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장석웅 전라남도 교육감, 이형석 국회의원, 송진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부위원장, 김준하 광주과기원 교수 등 네 명이 출연했다. 정치인, 교육계, 문화예술계, 과학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코로나 시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제시하는 시간이어서 매우 유익했다.

-10월 10일 뉴스에서 나주 열병합발전소(SRF) 문제를 거론하였다. 그런데 타협이 안 되는 중요 내용 중 하나가 광주시(청정 빛고을)와 관련된 부분이다. 광주시는 나주 SRF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나주 SRF로 넘기기 전 단계 처리시설인 양과동 SRF의 중단에 따른 손실(94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나주 SRF를 푸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나주시와 광주시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런데 나주 열병합발전소 해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에는 나주시, 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범시민대책위 등 5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고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광주시는 빠져있다. 이런 것 역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소통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은 증거 중 하나이다. 뉴스에서 이런 문제도 함께 거론하면 좋겠다.

-10월 1일 자 뉴스에서 <소멸하는 고향-희망이 없다>는 주제로 보성군과 나주

시의 현황을 조사 보도했다. 보성군 어느 마을의 경우 80년 노인이 이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광주시와 전남으로부터 이주자를 제외할 경우 순수 외지인은 12,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런 뉴스는 광주·전남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잘 지적한 것이다. 뉴스에서는 전남 22개 시군 중 소멸 예상 지역이 18개나 된다는 내용도 있었다. 10월 6일 자 뉴스에서는 2020년 무안공항의 활주로 이용률이 0.6%, 하루 이용객은 평균 83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군 공항 이전 문제 등을 놓고 대립만 하고 있다. 방송이 전남의 현황, 암울한 미래,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경직된 태도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도하면 시·도민들이 현안의 성격을 이해하고 해법을 찾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 강부원 위원 : -<오매 전라도>를 자주 보게 되는데, 마지막에 시청자 문자를 사진과 함께 보여주는데 프로그램에 있었던 것을 바로 피드백 받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어서 굉장히 좋았다. MC들이 거기에 맞춰서 서로 피드백을 하듯 말을 하는데 그 부분이 라디오 같은 감성이 들어서 좋았다. 10월 7일자 <오매 전라도>에서는 창작뮤지컬 <광주>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참신했다. 인터넷으로 주문이 어떨고 평점이 어떤지 찾아봤다. 요즘에는 분위기가 좋아져 상승세를 하고 있다. 광주라는 뮤지컬이 성공해서 젊은이에게도 광주의 실상이 알려지면 좋겠다. 평점의 대부분 내용이 박한수의 일상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평이 많았다. 저도 한번 보고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10월 12일자 “한국 음악사 연구의 대가 손태룡” 부분은 내용 자체가 좋고 참신했다. 제목이 한국 음악사 연구의 대가라고 했는데 내용이 나올 때는 손태룡 씨가 한국 음악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구 음악사를 공부한다고 해 이질적인 부분이 있었다.
- 김요수 위원 : -10월 5일 <오매 전라도>를 다른 지역 사람과 같이 봤는데 생각보다 5.18을 잘 몰랐다. 5.18을 이야기할 때는 타 지역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한 수식들을 붙여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 ‘정권을 잡으려고 군부 세력이 일컫킨 5.18’이라든가 ‘광주시민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5.18’이라든가, 이렇게 말이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강물을 이루듯이, 우리의 작은 표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공연이나 전시를 소개해 줄 때는 시청자에게 가고 싶게 호기심을 줘야 하는데, 그 대목이 약하지 않았나 싶다. 스튜디오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김호락 대표의 인터뷰가 있었다. 광주에서 시작한 애니메이션이 세계까지 뻗어간 스튜디오 버튼의 성과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성공 사례가 자주 소개되었으면 좋겠다. 거절을 당하면서도 도전을 하고, 거절을 당할 때마다 열정을 보태는 삶이, 결국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과정이 잘 설명되면 또 다른 도전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말이다. 인기 비결이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비결이 잘 그려지고, 창작하며 애쓰는 모습도 잘 보여주면 좋겠다. 여수 돌산의 신기마을 문어와 은갈치 소개는 계절에 잘 맞는 소개였다. 주로 집에 머무는 답답한 코로나 시대에 탁 트인 바다를 보여주고, 문어와 은갈치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과정을 보여주니, 또 다른 곳에서 삶을 끌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 이묘숙 위원 : -요즈음 <오매 전라도>를 자주 시청하게 되는데 지역의 이슈와 주변의 이야기를 재미있고 쉽게 접근하고 진행해서 지역 시청자들에게 정보전달 차원에서도 좋았다. 때로는 무거울 수 있는 시사를 일상적으로 쉽게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이

해도를 높이고 더 많은 관심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특히 문화예술이 침잠해 있고 문화 현장 등이 정지된 상태인데 중요 행사와 관심 사항을 발 빠르게 집중적으로 전해주고 있어서 좋았다. 코로나19 속숨은 영웅 의료기기 개발자 오준호 씨의 방송은 현장에서 확진자들을 빨리 검색하고 치료할 수 있었던 부분을 바로 우리 광주에 있는 분들의 개발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게 신기했고 자부심을 느꼈고 광주가 K방역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관심과 자부심을 일말의 다운된 마음이 다른 방식의 희망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내용이었다. 또 수해를 딛고 재개장한 구례 오일장은 자칫 잊히기 쉬운 수해 피해지역의 문제에 대한 환기와 현재 상황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울러 광주에서 진행되는 각각의 문화행사 소개와 집중탐구도 좋았던 부분이다.

- 강부원 위원 : -정가라는 분야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풍류달빛공연>에 정가가 나와서 좋았고 하윤주 씨가 출연해 좋았다. 뒷부분에 정가가 판소리와 어떻게 다르다는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이 앞에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정가를 들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았다. 적어도 자막으로라도 먼저 설명을 해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
- 김요수 위원 : -10월 4일 <시청자가 만드는 TV> 편이다. 시청자가 만들었으니 좀 어색하고, 화면이나 구성이 다양하지는 않았지만 강민경 님이 만든 호남지역에서 백범 김구 선생과 인연, 그리고 장소 소개가 신선했다. 아주 작은 인연도 관광지로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유럽의 도시들이 떠올랐다. 또 광주에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5.18기념공원을 생활 속에서 살펴본 위준복 님의 프로그램도 신선했다. 5.18기념공원에는 80년 당시 고교생들의 저항도 새겨져 있는데, 그게 빠져서 조금 아쉬웠지만,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벼룩시장도 열리는 모습이 담겨있었고, 주차 문제도 거론을 해주었다. 서진주 님이 만든 ‘숫대’는 옛날 숫대를 만드는 의미, 숫대에 담은 영원을 그렸고, 숫대를 만드는 과정이 좋은 풍경과 어우러져서 좋았다.
- 이정권 위원 : -<난장>은 전국 뮤지션을 대상으로 신인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음악 활동을 지원하고 방송 출연의 기회를 제공한다. 전용공연장인 나주정미소 “난장곡간”은 나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100년 역사를 간직한 정미소와 양곡창고 등 4동의 건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복합문화공간이며 난장곡간이 그 첫 번째 시도로 문화적 기여 및 지역 홍보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향후에는 나주에 있는 특정한 공간보다 특히 광주는 많은 예술공간이 많다.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고 광주를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많은 남도 시민들과 함께 어울려 콘서트 관람 문화가 형성되고 SNS 홍보 활동도 이루어지면 전국에서 관람객들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 같다.
- 이요숙 위원 : -현재 광주는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광주MBC 홈페이지 메인 상단에는 여전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안내가 그대로다. 실시간 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발 빠르게 전달하고 있는 방송사의 메인은 실시간 정비가 필요한데 반응 속도가 늦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모두들 뉴노멀 시대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 언택트 사회와 시를 논의하고 있다. 방송도 또한 선도적인 전환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홈페이지에서도

속도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 최선희 부위원장 : -최영태 교수님의 김대중 특강을 홈페이지 화면을 통한 유튜브를 통해 보니 편리하고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애용할 거 같다. 좋은 프로그램들을 유튜브화 시켰으면 한다. 최영태 교수님의 특강은 원래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주는 시사성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다. 현대 한국사의 축소판이자 우리나라의 유일한 노벨평화상의 수상자인 김대중, 그를 회고해 보고 재조명해보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주었다. 필요에 따라 적정한 영상 자료와 그래픽 처리가 내용을 이해하고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라디오 프로그램이면서 TV 프로그램 이상의 연상 작용까지 더하여 간결한 이해가 향상되었다. 홈페이지에서도 헤드 프로그램으로 선두에 배치하여 한눈에 식별되고 검색하는데 이해를 더하였다. 가장 절약적인 방법으로 가장 효율성을 높이 내는 가성비 높은 제작이라고 평하고 싶다.

-이상으로 위원님을 의견을 마치고 답변 바란다.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강부원 위원 말씀하신 한국음악사 관련해서는 자막에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매 전라도>는 16개 계열사가 상호교환해서 방송하는데 일단은 자체 제작 아이템과 타사 아이템을 적절하게 배치해 방송하는데 우리 수준에 안 맞는 경우도 있어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 같다. 김요수 위원 말씀하신 5.18 앞에 수식하는 단어 좋은 지적 감사하다. 향후 제작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 문화콘텐츠를 아이템화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만들기도 어렵고 설명하는 사람 찾기도 어려운데 이요숙 위원께서 바쁘신 가운데 잘 설명해주셔서 방송에 도움이 컸다. 감사드린다. 이정권 위원 의견 주신 <난장> 관련해 <문화콘서트 난장>을 밖에서 하자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 제작비 지원이 필요한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프로그램의 진가를 알아본 나주시의 지원이 있었다. 다행히 <아시안탐밴드>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해주셔서 결승전 녹화를 20일 진흥원에서 한다.
- 조현성 보도국장 :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주셨는데 시도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초창기고 상대적으로 전남에서는 미온적인 상황이라서 방송국이 의견을 갖고 가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다 싶어서 조심스러웠다. 나주 SRF나 군 공항 이전도 민감한 부분이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국으로 치달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현장성을 강화해달라는 것은 언제나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로도 현장성 있는 뉴스를 해야 저희도 보람이 있고 시청자 반응도 좋다. 한정된 자원이지만 현장성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강화하겠다.
-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 -강부원 위원 말씀하신 <풍류달빛공연>은 지상파 프로그램인데 저희 부서에서 제작하고 있다. 편집구성 등을 보완해서 시청자가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하겠다. 최선희 위원 말씀하신 김대중 특강 관련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가 있으면 다양하게 접근해서 제작하겠다.
- 한신구 경영기획국장 : -이요숙 위원님 지적하신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관리업체와 협력을 강화해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
- 송일준 사장 : -바쁘신 중에도 TV와 라디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도움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매체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 새로운 매체가 나오면 기존 매체가 올드매체가 되고 새로 등장한

매체가 뉴미디어가 된다. TV의 지배가 이어지다 디지털시대로 TV가 올드매체가 됐는데 올드매체건 뉴미디어건 결국은 콘텐츠를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를 잘 만들면 변화하는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제 임기 중에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유통을 통한 영향력 확대, 수입 확대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박병규 단장이다. 2018년 연 매출이 1,700만 원, 작년 매출이 1억 3천, 새로운 채널들을 론칭해 올해 5~6억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에 비해 적은 콘텐츠를 활용 재가공해 수입을 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어서 99% 인력과 자본을 서서히 디지털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뉴스도 마찬가지다. BBC 경우도 우선 디지털에 올리고 그다음 지상파의 메인뉴스 방송을 하고 있다. 저희도 결국 그렇게 가야 되는데 처해 있는 여건, 갖고 있는 자원의 한계 때문에 생각만큼 빠른 변화는 어렵지만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박 채널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거다. 그 시대 분위기와 젊은 층의 심금에 달아서 터지는 것인데 우리도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데 많이 해봐야 한다. 동시에 지상파 공영방송의 사명으로 김대중 대통령 정신 선양과 5.18은 광주MBC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늘도 <평화의 길, 김대중> 방송이 이어지니 관심 부탁한다.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MOU를 맺고 왔다. 광주, 여수, 경남 MBC 3사가 투자를 했다. 수입 다각화 및 방송 외적 부분의 지역발전 기여 측면에서 참여했다.

○ 최선희 부위원장 : 이상으로 10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